

與野, 공천후보 '막말논란'에 골머리 이대로는 정치 양극화 극복 어려워

野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과거 노 전 대통령 칼럼 논란
비명계 전해철 의원에 막말도
與도 논란 후보, 사전에 못 걸러
도태우·장예찬 무소속 출마 우려

21대 국회가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4년을 보낸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정치 풍토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한때는 여대야소, 한때는 여소야대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양곡관리법, 간호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22대 총선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원내의 진입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 막판 공천 갈등의 중심의 선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과거 공론장에서 쓴 글이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를 친문재인계와 비이재명계와의 갈등으로 만드려는 모양새다.

양문석 후보의 경우 단어 선택이 자극적이긴 했지만, 우리 사회는 칼럼을 통한 정치 지도자 비판을 용인해왔다. 양 후보도 이를 과거 발언을 사과하고 전날(18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절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양 후보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띄우기 위해 보여왔던 행보가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함은 물론,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경남 통영을 떠나 비이재명계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 도전했다. 양 후보는 전 의원에 대해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후보는 지난해 6월 전해철 의원에 대해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해 '당직 정치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흔히 '비이재명계'를 비하해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표의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이를 더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이다. 결국, 양 후보는 당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전해철 의원과 경선에서 붙어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의 비전과 가치를 보고 모인 것이 대중정당인데, 양 후보는 당내 경쟁자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 접에서 다른 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다. 저를 포함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박, 바퀴벌레, 고름이라 멸칭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국민을 '찌'이라 폄하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온 안산갑에 대해 '저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막말 논란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지만,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공당의 후보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말해왔던 도태우 씨는 대구 중·남구에, 청년 비하 논란 등을 일으킨 장예찬 씨는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된 후보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양 후보의 경우 과거 글로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선거판을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18일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 중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5255t)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 모의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오는 19~23일 선상투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뉴스시스

조국혁신당, 지지율 20% 상회 국민의미래 대항마로 '주목'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더불어민주당 및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 조국혁신당 등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 순번 추천을 거의 완료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이번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얻는 것은 국민의미래로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도 '돌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19일 현재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연합,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발표했다. 국민의미래는 35번(예비 10번), 더불어민주당연합은 30번, 새로운미래는 13번, 녹색정의당은 14번, 조국혁신당은 20번(예비 남·녀 각 3번)까지 후보가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조만간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조국혁신당의 비례의석 확보 규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미래, 녹색정

**주요정당 비례대표 순번 추천 마무리
여론조사 결과 통해 의석수 계산 시
국민의미래 최대 19석, 민주당연합 14석
조국혁신당 '돌풍'에 11석~14석 전망**

의당, 개혁신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도 공천했지만, 조국혁신당은 21대 총선 열린민주당과 같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와 참여연대의 '22대 국회의원 의석수 계산기'를 통해 각 정당의 비례 득표를 예측해 봤다. 인용된 조사 자료는 지난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다. 계산에 있어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는 1석으로 가정했다. 계산에 들어간 정당은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온 곳만을 기준으로 했다.

우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진행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31.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다음은 조국혁신당이 26.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8.0%, 개혁신당은 4.9%, 자유통합당은 4.2%, 새로운미래 4.0%, 녹색정의당은 2.7%였다. 기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1%로 였으며, 무당층은 6.2%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통해 의석수를 계산해본 결과, 국민의미래는 16번

까지 당선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9번, 개혁신당은 3번, 새로운미래는 2번까지 당선권으로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14번까지 당선권이다. 비례 2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넉넉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리고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통합당도 2석을 얻는 것으로 나왔다.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미래가 34%, 더불어민주당연합 24%, 조국혁신당이 19%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자유통합당 1%였다.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계산했을 때는 국민의미래는 비례 19석,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4석을 얻는다. 조국혁신당은 11번이 당선권인 것으로 계산됐다. 개혁신당은 2석을 얻지만, 나머지 언급된 정당은 3%에 미치지 못하므로 0석이었다.

두 가지 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미래는 16~19석, 더불어민주당연합은 9~14석, 조국혁신당은 11~14석, 개혁신당은 2~3석, 새로운미래와 자유통합당은 0~2석으로 전망된다. 녹색정의당은 두 조사 모두 3% 이하로 나왔으므로 0석으로 계산됐다.

일단, 국민의미래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다수가 국민의미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비례정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여론조사 상 수치도 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나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당 간 비례대표 의석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셈이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를 합치면 국민의미래보다 많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또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점도 변수에 속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외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가는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를 고를 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유의미한 3지대 표는 조국혁신당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국혁신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범야권의 선거에 단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진 기자 syj@

이번엔 비례대표 공방...尹-韓 갈등, 당 전체로 확산?

이종섭·황상무 논란서 입장 엇갈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발표 후
친윤계 이철규 SNS서 불만 드러내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회갑 발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당내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친윤계(친윤석열계)에서 비판이 제기돼 여권 내 '집안싸움' 조짐도 보인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입장이 엇갈린 것을 두고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의 즉각 귀국, 황상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이용호 서대문갑 후보, 박진 서대문을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수석의 자진사퇴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 사퇴를 선을 긋고 있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이 당의 압박에도 뜻을 바꾸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한 갈등 시즌 2'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경

울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으로 촉발된 1차 갈등이 봉합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한 번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윤한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미래(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친한계(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있었다는 풍문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이 발표되자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당헌·당규에는 당선권의 3분의 1 이상을 (호남 출신에) 배치하게끔 돼 있다"며 "(비례대표 순번을) 당 사무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좌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순번)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